

힐링 열풍 이면에 드리워진 '트라우마 공화국'

한국이 아프다. 한국사회가 트라우마에 신음하고 있다. 어디가 아플까. 아프다면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너도 나도 웰빙을 외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지금은 힐링을 이야기한다. 힐링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힐링을 브랜드화하면 돈벌이가 되는 작금의 세태는, 역설적으로 아플까지도 돈으로 계수된다는 의미다.

아픔은 상처에서 비롯된다. 트라우마는 심리적 충격에서 연유한다. 한국인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유독 심리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협소한 국토와 남북 분단,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는 생존에 대한 압박을 강요했다.

한국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물을 '트라우마'라는 키워드를 통해 분석한 책이 나왔다. 지난 2010년 '불안증후군'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심리학자 김태형씨가 펴낸 '트라우마 한국사회'는 한국인의 심리에 내재한 상처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게다가 이런 상처들이 채 아물기도 전에 돈 중심, 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한국인들은 세대와 계층, 중심과 변방으로 갈라져 쪼개졌다."



'트라우마 한국사회'

김태형 지음

저자는 한국사회 여러 세대가 지닌 상처가 무엇이며, 근원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시기별로 나누어 들여다본다. 그는 50년대생은 '좌절 트라우마'로 규정한다. 유년기부터 반복된 좌절의 경험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느끼는 세대란다. 민주화세대라고 일컫는 60년대생은 '미완성 트라우마'로 본다.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지만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실망감이 잠재돼 있다는 거다.

'흔든 트라우마'로 지칭한 70년대생은 혼돈의 세대다. 이들은 사회 양극화로 정치에 대한

허무주의와 집단적 좌절에 빠져 있다. 이와 달리 80년대생은 '공포 트라우마'에 휩싸인 공포 세대라고 본다. 공부기에서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누적된 공포가 공포로 전이됐다는 견해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지난 대선의 승부를 가른 변수로 트라우마를 지목했다는 점이다. 각 세대, 계층, 분단, 지역 문제로 생긴 트라우마가 선거의 결과를 갈랐다는 것이다.

유년기부터 중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좌절을 맞은 '좌절세대'인 50년대생이 대세를 따라 움직였고, '변방 트라우마'로 대변되는 충청도, 강원도 주민들이 여론에 표를 던졌다.

부자 열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월감 트라우마'에 빠진 자영업자와 보수세력이 여론으로 풀렸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분석한 트라우마라는 틀이 다소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각 세대를 작위적으로 나누는 데다 트라우마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이상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고 파는 곳이 어디 있느냐"는 도종환의 시처럼 상처 없이는 발전이나 도약은 담보할 수 없다. 트라우마를 긍정적 인 에너지로 승화하면 수준 높은 창조성이 발현되지 않을까.

〈서해문집·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특허권이 없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

미셸 볼드린·데이비드 K. 러바인 지음

"지적 재산권은 필요악이다."

지적 재산권이 창안과 혁신을 장려하지만 필요 이상의 독점적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세인트 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미셸 볼드린과 데이비드 K. 러바인이 쓴 '지식 독점에 반대한다'는 특허권에 관한 기존 상식에 도전한다. 이들은 심지어 특허권이 없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산업혁명을 태동시킨 영웅적 발명가로 평가받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와트가 1712년 토머스



뉴커먼이 만든 최초의 실용적 아이디어를 모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를 토대로 특허권을 획득했다는 입장이다. 와트는 이 특허권으로 법적 경쟁자를 이길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도 그 특허권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지적 재산권이 유용한 지식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지식 독점은 양날의 칼이다. 성공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독점을 확보한다면 혁신적 노력이 대한 보상은 분명 더 크다. 하지만 독점이 존재하면 창작비용도 오른다. 극단적인 경우에 218달러짜리 영화 하나 만드는 데 음악 권리 비용이 40만 달러이다."

〈에코리브르·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푸어를 양산하는 한국경제, 해법은

'한국경제의 현주소, 한계가족'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도 그동안 누적돼 온 경제적 모순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같은 경제적 모순들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카푸어 등의 신조어로 표출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가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빚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어 악성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직한 문제는 이같은 경기 악화가 경기순환에 기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장기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에



대해 일찌감치 경고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가 경제적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의 일반적 가계에 초점을 맞춰 책을 펴냈다.

책의 제목인 '한계가족'은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한국경제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계가 계속 늘어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한계가족이 이같은 상황에서 탈피하려면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한국경제의 거시적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팩트·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붕어빵 장수 아들 타코야끼 팔다

'풀빵이 어때서?'

김학찬 지음

제6회 창비장편소설 수상작 '풀빵이 어때서?'가 나왔다.

최명희 문학상, 전태일 문학상 등을 수상한 김학찬씨의 작품이다. 소설은 붕어빵 장수의 아들이 타코야끼 장수로 자립하는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붕어빵을 구워온 주인공은 군대에서도 붕어빵만을 구우며 군생활을 마친다.

붕어빵에 질린 아들은 우연히 떠난 일본 여행에서 운명처럼 타코야끼를



만나 요리 유학을 떠나고 이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불화는 시작된다. 주인공과 임용 교시를 준비하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세대의 삶을 대변하는 현직자와의 사랑 이야기로 소설의 한축을 담당한다.

은희경 등 심사위원들에게 소재에 대한 장악력, 생생한 인물 묘사, 깔끔한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며 제치있는 발상과 기발한 화법이 눈길을 끈다는 평을 받았다.

〈창비·1만10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경제영역에서 찾는 민주주의 가치

'경제민주화 자유와...'

이춘구 지음

지난 2012년 대한민국 사회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경제 영역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현직 언론인이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멀리적으로 체계화한 책을 펴냈다. 이춘구 KBS 기자가 쓴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양극화, 대기업 중심 경제력 집중, 소액주주의 결핍 보호 소홀,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 등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본다.

특히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은 경제



민주화 찬성 여론이 높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건국이념을 제시한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 과제론 경제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대기업단 규제와 개혁, 성장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을 꼽는다.

〈이지출판사·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또 다른 우주의 존재... 혁명의 현장을 생중계한다

'평행우주라는 미친 생각은...'

토비아스 휘르터 외 지음

'우리 모두는 여러 개의 세상들에 살고 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 500년, 인류는 다시 한 번 혁명의 징후를 맞이하고 있다. 우주가 '다중우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 또한 유일하지 않으며 또다른 나, 수많은 분신이 존재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기묘하고 거대한 상상은 점차 상식적인 세계관이 될 것 같다.

'같은 우주 출신'의 두 저자 토비아스 휘르터와 막스 라우너가 패러다임을 뒤흔든 논쟁의 과학사 '평행우주'라는 미친 생각은 어떻게 상식이 되었는가'를 펴냈다.

이 책은 다중우주와 평행우주에 대한 논쟁의 과학사이자 평행우주에 관한 과학혁명의 생중계다. '우이하



고 완전한 우주'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탄생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저자들은 양자역학의 난해한 이론을 늘어놓는 대신에, 훨씬 재미있고 실제적으로 평행우주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평행우주라는 생각이 천문학 역사에 처음 등장한 때부터 최근까지 잊혀질뻔한 이야기로 온 생애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책을 쓰면서 토비아스 휘르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제로는 여러 개의 세상일 수 있다는 생각과 친숙해졌지만 막스 라우너는 다중우주이론을 더욱 더 기묘한 이야기로 여기게 됐다. 또다른 우주의 존재를 믿을 것인가는 오직 독자의 몫이다.

〈알마·1만4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간

▲엄마 생각 아이 마음='60분 부모' '아이의 발상' '내 아이의 전쟁 알레르기' '마리스크' '오래된 미래, 전통음악의 비밀' 등 대한민국 최고의 육아 프로그램을 제작한 김광호 PD가 말하는 현실육아의 해법. 넘쳐나는 육아지식과 현실속 육아 사이에서 현명하고 용기있게 아이를 키워낸 수많은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육아가 어려운 엄마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가장 현명한 길을 제시한다. 〈라이온북스·1만4300원〉

▲조선인 박연(上·下)=380여년 전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인 조선의 해안에 도착했다. 네덜란드 선원 출신으로 동중국해 주변을 주름잡던 해적 안스 벨테브레. 하멜보다 먼저 조선에 도착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음과 더불어 '박연'이란 이름으로 조선에 머물렀던 최초의 귀화 유럽인이다. 이방인이지만 누구보다 조선을 뜨겁게 사랑했던 거인(巨人)으로서의 삶을 담았다. 〈RHK·각권1만2000원〉

▲한낙원 과학소설 선집 외=현대문학의 '한국문학의 재발견-작고문인선집' 시리즈 중 하나인 '한낙원 과학소설 선집'. 한낙원은 우리나라 과학소설의 선구자이며 전 생애에 걸쳐 '과학소설'의 이름에 걸맞은 창작 활동과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유일한 작가라 할 수 있다. '길 잃은 애벌레' '미애의 로봇 친구' 등 대표작을 모았다. '송옥시 선집' '오유권 소설 선집' '김광성 선집'도 함께 출간됐다. 〈현대문학·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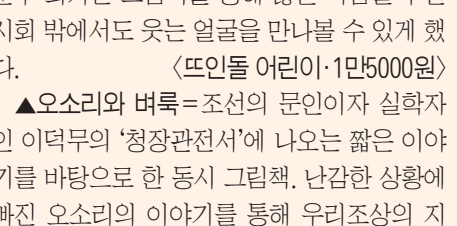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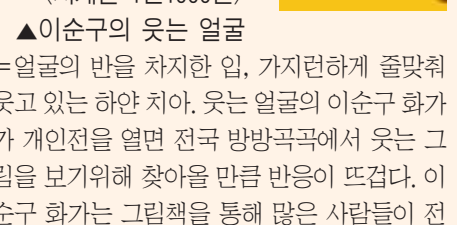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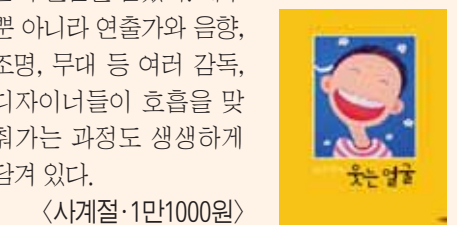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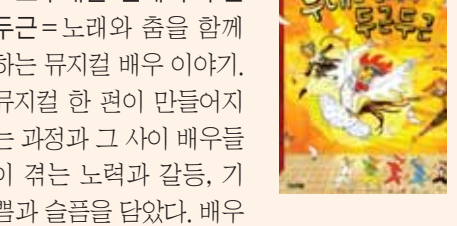
▲그대를 사랑합니다=강풀 원작의 웃음과 눈물의 러브스토리. 웹툰 300만부, 출판만화 25만부, 연극 20만 관객,영화 170만 관객, 드라마 제작에 이어 소설판이 출간됐다. 만화로 읽은 감동은 부모님과 스승에게 소설로 선물할 수 있도록 원작의 뼈대 위에 새 삶을 덧입혀 재미와 감동을 살리면서 동시에 짧은 세대들의 사랑 이야기를 풍성하게 덧붙였다. 〈행복한책읽기·1만2000원〉

▲약마 같은 여인들=19세기 프랑스 작가 가운데 가장 독특한 문학을 구축했던 작가지자 당대 문학 거장들에게도 거침없는 비판의 날을 세운 평론가인 필 바르베 도르비이의 작품집. 도르비이의 문학적 목표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악마적 속성을 파헤치는데 있다. '약마 같은 여인들'은 이같은 작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중편 여섯 개를 묶은 작품집이다. 〈문학과학지성사·1만3000원〉

▲조선의 포도대장=살인 사건부터 역모까지 민중의 애환과 함께 한 조선의 포도대장 12인의 이야기.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포도대장의 삶을 기록에 의거해 간추렸다. 최초의 포도대장이 할 수 있는 체포왕 이양생부터 고종 대에 천주교인들로부터 '열대왕'이라 불린 이경까지. 이들에게는 권력형 스캔들, 나라를 뒤흔든 역모, 소소한 절도사건, 끔찍한 살인사건 등 많은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한일미디어·1만3800원〉



▲무대는 언제나 두근 두근=노래와 춤을 함께 하는 뮤지컬 배우 이야기. 뮤지컬 한 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사이 배우들이 겪는 노력과 갈등, 기쁨과 슬픔을 담았다. 배우 뿐 아니라 연출가와 음악, 조명, 무대 등 여러 감독, 디자이너들이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도 생생하게 담겨 있다. 〈사계절·1만1000원〉



한 오소리와 은혜를 모르는 벼룩 중 누구 편을 들고 싶은지 아이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미세기·1만1000원〉

▲안녕, 나미스테!=어린이가 책 시리즈 첫번째.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동물 요가를 소개한다. 책장을 열면 햇살 가득한 뜰에서 울망울망한 아이들이 저마다 몸을 풀고 있다. 자연과 교감하듯 맨발로 서서

지그시 눈을 감고 한껏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 다. 한 아이는 반가부좌를 하고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다. '안녕, 나미스테!' 경건한 마음을 담은 인사다. 〈이아기꽃·1만1000원〉

▲그래서 이런 명화가 생겼대요=4년간 천장에 매달려 완성한 명화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병원에 찾아가 시체를 관찰하면서까지 스케치한 레리코의 '메두사호의 뱀목', 친구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정선의 '인왕제색도'까지... 한 점의 명화가 탄생하기까지의 감동적이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겼다. 〈길벗스쿨·1만1000원〉